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 우한(武漢)에서 온 사람들

“우리는 어딜 가나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체르노빌 사람들 ‘체르노빌 어린이’ 체르노빌 피난민’이라며 배척당했다. 나는 어린 딸을 데리고 민스크에 사는 여동생 집으로 찾아갔다. 동생은 모유를 먹이며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를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 딸과 나는 기차역에서 잤다.”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쓴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이 책은 1986년 4월 26일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벨라루스 공화국 내 48개 마을이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면서 주민들이 강제로 퇴거되었을 때의 상황을 증언을 모아 구성한 비극적인 이야기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에피소드가 문득 생각난 것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지인 우한(武漢)지역에서 탈출 귀국하는 한국인을 위한 격리시설 설치를 놓고 큰 사회적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다. 정부는 지

난 28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유학생을 포함한 우한 거주 한국인 700여명을 귀국시켜 증상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마땅한 조치였다. 그러나 사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준비도 실행도 굵팠다.

가장 큰 문제는 격리 수용시설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 정부는 귀국자들을 충남 천안의 공무원 교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자 천안 주민들이 반발하고 시위까지 벌이는 사태가 일어났고, 유권자를 의식하는 지자체가 반대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격리시설은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다. 이들 두 지역 주민들도 트래커 시위를 벌이며 반대한 것은 천안의 반대 시위를 생각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한 교민 367명을 실은 전세기가 31일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 교민들은 김포공항에서 검

역 절차를 거쳐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 모두 아산과 진천 격리 시설로 이송되어 수용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된 사람은 국가 지정 병원에 입원 조치된다. 데모를 하던 아산지역 주민들도 어젯밤 우한에서 전세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 해산했다니 다행이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보며 한국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가 몇 단계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엔 드러난 격리수용시설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다. 21세기에 들어서만 해외에서 발생한 전염환이 사스, 메르스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논쟁을 일으키며 격리 수용시설을 선정해야 하는 것인 지 의문이다.

지금은 기후변화의 시대이고 세계화와 사회관계망(SNS)이 구축된 초연결 사회다.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재앙과 질병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점점 급박해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공공시설을 검역격리

및 재난 대피시설로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그곳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하려면 격렬한 주민의 반발과 더불어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번 격리수용소 선정을 놓고도 여러 지역과 아산지역 논쟁이 있지 않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선 여야가 절대 필요하지만, 수용시설물을 놓고 여야가 갈리는 일은 피해야 할 논쟁이다.

예부터 역병이 돌면 소문과 괴담이 판을 쳐왔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스마트폰 하나에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 환경이다. 정부가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태의 진전에 따라 체계적으로 또 진지하게 대처해서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

검역이라던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열감지기를 통과하는 절차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도 검역의 일부이지만 원래의 개념은 전염질환에 노출된 사람들을 일정기간 격리해서 관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격리시설 주민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 지역에 격리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감염환자가 나와 가족과 동네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줄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 社 說

## 5·18 40주년 준비 차질 없어야

코로나19 감염증 여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기념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사위원회 출범식 등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됐던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40주년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적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지역민들의 걱정은 크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20일 광주·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행사위원회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같은 날 광주 출범식 행사 역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 7일 광주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18 전국화·세계화 우호교류 협약식’도 취소됐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진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잇따른 휴원에 대학들의 신학기 개강 연기 등으로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각종 축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대

대적인 출범식을 연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일단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18사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시 전역의 5·18사적지 29곳으로, 사적지 표지석과 주변 환경은 물론, 5·18유공자가 안장된 구 묘역을 중점 점검하고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4월까지 보수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40주년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5·18사적지를 많이 방문할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준비할 것도 많고 마음도 급한데 일정까지 차질이 빚어져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도 5·18 행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40주년을 맞는 올해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규명하고, 행방불명자 유해를 찾는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사정이 여의찮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8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논두렁, 밭두렁 소각 주의보 발령

작년 4월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1명의 사망자와 수 많은 주택과 가축, 그리고 1,757ha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다. 최초 발화지점이 전신주 개폐기로 당시 전신주에 달리 개폐기와 연결된 전선이 강풍에 심하게 흔들리다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 대형 산불에서 계속 중계보도 되는 것을 보며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산불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 의하면, 산불은 바람의 속도와 방

향에 영향을 받아 전파되는데, 불에 의한 난류와 산과 계곡 등에 의해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도깨비 불처럼 불뿔이 50, 100m는 쉽게 이동하며, 불씨가 눈발처럼 날린다고 한다. 작년의 중국 쓰촨성 산불화재에서도 소방관 30명이 사망한 것도 산불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봄철은 한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로 논·밭두렁을 정비하고자 소각하는 모습을 손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간과한 사

실이 하나 있다.

봄은 건조기로 화재위험의 높은 계절이다. 건조했던 가을과 겨울을 지나 봄이 온 것이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과 나뭇 가지들은 6개월 남짓 동안 잘 건조되어 훌륭한 빨간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곳에 한해의 농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불을 부치는 순간 대형 화재를 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전남에서 최근 5년간 봄철(3~5월)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에 연평균 778건의 화재가 발생되어 시계절 중 겨울보다 높은 화재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발생 요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담배꽂초 무단투기, 폐농작물이나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은 3월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인화재가 봄 철화재의 21%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논·밭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 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민들이 잘 동참하여 실천해 주길 바란다.

문태운 / 영암소방서 소방사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영간)

**호남신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